



LA 올림픽 참가기

신 기 문

태릉 선수촌 물리치료실

비발디의 '봄'의 현란한 음률을 귀로 되뇌이다가 살며시 감졌던 눈의 긴장을 풀었다.

창밖으로 잔별들을 깔아 놓은 듯 조그맣게 반짝이는 불빛들이 내려다 보이고 있었다. 그 조그마한 불빛보다도 작은이로서 무엇인가를 해 보고자 바둥거리던 내 자신을 얼핏 웃을 수 있었다.

태양의 비추임 없는 구름들은 무거운 젓빛이었고,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의 흐느낌으로, 내려져 있던 작은 창을 울렸을 뎌, 새하얀 웅단으로 저마다 동실 동실 피어오르는 구름들을 읽었고, 그 너머 세상의 저쪽이 눈 앞에 있었다.

치밀한 계획으로 죽죽벌은 길들과 장난감같은 빌딩들과 자동차 게임들의 즐거운 행진을 내려보며, LA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먼저 Arrival Center 에 들러 OLYMPIC FAMILY 들을 위한 I.D. Card 를 만들었다. 즉석사진촬영시에는 "Smile"이라는 말에 멧없는 웃음을 짓느라 새우눈을 가진 사람의 CARD 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곧이어 숙소로 향하게 되었다.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축제에 들뜬 듯하며, 어쩌나 친절했는지, 또한, Smog 로 쪼들었다는 그곳 시내의 공기가 얼마나 상큼하고 신선했는지, 약간의 놀라면서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Pasadena 의 Occidental Collage 에 숙소예약을 확인한 후 Broan Hall 에서 여장을 풀었다.

사막위에 순전히 사람들 손으로 이룩한 도시에서 풍기는 저녁의 정취는 이국적 낭만에 젖게하기에 충분하였고, 폴베레스리만이 땅거미지는 천사의 도시를 밤으로 재촉하고 있었다.

매일 선수숙소까지 Shuttle Bus 를 타고 출퇴근하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읽을 수 있었다.

보통, 약속시간을 어길 때 'KOREAN Time' 이라고 말할까곤 하였지만, 근면 질서의 국민성을 자랑한다는 나라의 사람들의 무단횡단과 상투적 Time Schedule 의 지연을 보면서, 사람의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게 되었다.

경기장 주변의 주차장에 주차비를 볼때 바로 옆의 주차장과 가격차이가 엄청났다. 심지어 한 Block 안에 열배의 가격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으며, 네거리의 주유소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Gas 의 가격도 저마다 자유로이 내걸고 있었다. 길거리의 기념품판매점도 개성껏 가격책정을 하여 서로 자기네 상품을 사라고 떠들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그네들이 말하는 '자유' 라는 것이며, '실용주의' 라는 것인가? 하며 잠시 무슨 생각인가 잠겼다. 선수숙소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정형외과 및 내과박

사님과 한의사 한분, 마사지사 한명이 상근하였고, 고국에서 일년 넘게 선수촌에서 근무하던 것과 별다른 감흥도 없이 일과근무를 하였다.

특히 외국의료진들과 만나서 그 나라의 스포츠 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貧國으로 알려진 나라의 까무잡잡한 아가씨도 불란서 유학을 하였네, 미국에 있는 Sports Medicine Center 에서 공부 하였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86 및 88년도 큰 국제 스포츠 행사를 앞둔 우리들에게 있어서 Spots Medicine 에 관한 인식과 참여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선수촌내에는 POLY CLINIC 이라는 의원급 의료시설이 있었으며, Physical Therapy Room 을 비롯하여 Athletic Trainer Room 및 Massage Room 이 있어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10여개의 Beds 와 수치료실까지 완비한 간이 물리치료실에는 주위의 병원에서 지원나온 물리치료사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각 시설을 둘러보고, 책임자들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스포츠 의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친절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일주일 남짓 선수숙소의 의무실에서 부상선수들을 치료하고, 시합전 후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과 상해예방 Program 을 도와 주고서, 개인 투기종목의 시합장으로 지원을 나갔다.

환자는 개인종목선수가 단체종목선수보다 많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선수가 몇 명 있어서 경기를 포기하는 등, 마음 아픈 일도 있었다.

각 시합장에는 별도로 간이 Sports Medicine Center 가 설치되어 물리치료 및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고, Doping 을 검사하는 곳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한 경기장에 있으면 다른 경기의 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 E.M.S. (Electrical Message System) 이나 IBM 社의 O.M:S (OLYMPIC Message System) 등이 있어서, 신속한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였다. 결과문을 무척이나 거부했던 나로서도 어쩔 수 없이 경기결과만으 만족하여야 하였다.

경기전, Warming up 전후 전신의 Manual Therapy 와 만성적 손상부위의 Support Therapy, 경기직후, Mobilization 을 시행함으로써 물리치료가 경기장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고국에서부터 부상으로 걱정하던 선수가 Handicap 을 극복하지 못하여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일, 예기하지 않은 부상으로 시합을 포기한 선수, 아픈몸을 이끌면서 마지막 30분만을 살기로 약속하고, 결국 세계정상의 영예를 차지한 선수...이 선수들과 같이 흘린 나의 작은 땀방울은 매일같이 하나씩 뚝뚝 나오는 메달로 흐뭇한 기쁨을 얻기에 충분하였다.

8 월 10일에는 올림픽에 참가한 만국물리치료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경기장에서 시간이 너무 늦어 참석을 못한 것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23회 OLYMPIC 으로 열광하는 도시 L.A. 를 뒤로하고 Aloha 로 물결치는 Honolulu 에서 사흘을 지냈다.